http://dx.doi.org/10.17949/jneac.1.59.201906.019
동북아문화연구 제59집 (2019) pp. 315~332

개화기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조선과 일본의 인적 및 지식교류 연구현황 분석*

공 미 희**

【 목 차 】

1. 들어가기
2. 선행연구 분석 개요
3. 개화기 외교사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근대화 특징분석
3.1 日東記遊
3.2 日槎集略
3.3 使和記略
4. 개화기 출판물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근대화 특징분석
4.1 漢城旬報
4.2 西遊見聞
4.3 大韓帝國官報
4.4 大韓留學生會學報
5. 결론

1. 들어가기

조선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 및 문호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서양문물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76년부터 1883년까지, 4차례에 결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여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실태와 현황 및 서양문물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로서『日東記游』·『日槎集略』·『使和記略』등의 대표적 사행록을 남기게 되었고, 이들 기록물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인식과 문명개화 및 근대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근대화에 대한 관심은 부국강병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한 의지가 개화사상으로 나타났다. 4차 수신사 박영효에 의해 조선인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는 등 일본으로부터 서양문물 및 문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조언의 영향을 받은 박영효는 1883년에『漢城旬報』를 창간하였고, 이 신문은 국제정세, 전쟁 및 분쟁, 근대적 군사장비 및 국방정책, 개화문물, 선진외국의 정치, 문화, 제도, 역사, 과학 및 지리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서구의 근대기술의 유익한 점들과 서구과학에 관한 내용을 지방 곳곳의 지식층에게 전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연구교수.

하였고, 그 결과 서구의 근대사회와 문물에 대해 적지 않은 정보가 조선사회에 전파 되었다. 또한 최초로 일본에 유학한 유길준은『西遊見聞』을 1889년에 출간하였으며 조선정부는 문명개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大韓帝國官報』를 1894년에 발행하는 등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기록물들이 많이 작성되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수신사의 견문록(宋敏 1988, 李漢燮 1985, 2003, 2004, 최덕수 1998, 韓哲昊 2006a, 2006b, 한철호 2008, 鄭応洙 2010, 한태문 2011, 朴灘 2013, 이효정 2017), 신문(李漢燮 2004, 2010, 김지연 2005, 2009, 2011) 및 유학생 학보(白南德 2013, 2015)등을 바탕으로 개화기의 근대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제 신한자어 분석을 통한 조선과 일본의 어휘교류에 대한 선행 연구(宋 敏 1988, 1989, 李漢燮 1985, 1998, 2003a, 2003b, 2004a, 2004b, 2006, 2010, 김지연 2005, 2009, 2011, 2012, 白南德 2013, 2015)가 다수 수행이 되었고, 견문과정에 일본사회의 특징, 작자의 의도 및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연구(韓哲昊 2006b, 한철호 2008, 鄭応洙 2010, 朴灘 2013, 이효정 2017)도 진행 되었다. 그리고 견문과정에 일본 및 서양문물의 분석 보다는 인적 및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韓哲昊 2006a, 한태문 2011)도 수행되었다. 또한, 개화기 다양한 기록물 등을 바탕으로 조선의 근대화와 과학기술 도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분석을 통하여 개화기의 서구 과학기술 수용과정에서의 조선 내부적 정치적 문제점 및 과학기술 수용여건 부족 등으로 근대화 실패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교훈적 의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이배용 1996).

본 연구에서는 수신사의 견문록, 신문 및 유학생 학보 등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과의 교류 및 갈등 과정에 남겨진 역사적 기록물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일본제 한자어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문명개화 및 근대화 특징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또한 인적 및 지식과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개요

실학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 사이에는 서양 근대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서양과학을 번역하는 등 서양의 문명, 문화 및 지식을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선왕조는 일찍이 주도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에 의해서 1876년 강제로 개항이 되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정세와 개화 상태를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외교사절인 수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고 그 결과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견문록이 남겨졌다.

- 1차 수신사 파견 :『日東記游』
- 신사유람단 파견 :『日槎集略』
- 4차 수신사 파견 :『使和記略』

수신사 파견은 근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보면 간접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근대화관련 전문지식을 얻고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서양문화 및 지식을 쌓는 것은 일본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정부 관리자, 계몽가 및 교육활동을 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의 개화를 한국의 문명개화의 모델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 개화 및 개혁을 시도하거나 세계정세 및 과학지식을 전하는 신문을 창간하고, 개화상소(建白書)를 올리고 견문록을 남겼다. 이들 주요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또한, 일본은 서양문물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네덜란드인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 탄생한 난학에 의해서 의학, 과학기술 등의 서양지식이 확보되어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고 이와 같은 교류과정은 직접적인 교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때 지식, 문화 및 문물이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표1의 자료에는 근대화의 핵심 내용인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고, 견문과 같은 간접적인 교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들 근대화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제 신한자어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근대화의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된다. 오래전부터 한국 및 일본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로서 양국은 중국의 한자문화를 수용해 왔으나, 근대이후는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으로 전달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 및 중국에 앞서 일본이 서양문화 및 문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서양서적에 대한 번역작업이 활성화되었고, 번역과정에 일본에서는 신한자어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중국 고전어로 새롭게 받아들인 문화를 해석하는 일들이 행해지는 등 일본에서 먼저 서양문물 및 문화를 성공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이후 번역어의 성립 및 중국어에 들어온 일본어 어휘의 유입시기, 경로, 수용방법, 정착과정, 어휘변화 등의 연구가 활발했으며, 일본에서 창출된 전문어가 중국인 유학생의 번역활동에 의해서 중국어로 유입되어 근대日中의 어휘교류와 차용어 연구에 관한 양적인 연구 또한 활성화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어에 유입된 일본어 어휘를 살펴보면 한자어가 많으며 이것은 양뿐만이 아니라 조어법에 있어서도 한국어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당시 새롭게 유입된 문물에 대해서 번역 및 기록을 위한 어휘는 일본인이 고안한 일본식 신한자어로서, 한자구조를 이용해 서양어를 번역, 일본인이 중국고전에 있는 한어로 서양어로 번역한 것, 일본인이 독자적으로 한자를 만든 것 등 크게는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로 이 3가지 분류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어떤 근거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없으며 근대 전후의 시기를 설정해서 사전이나 서적 및 어떤 자료들에 근거해서 어휘출자를 구분 짓고 있다.

그리고 어떤 언어가 동일한 한자어권에서 유입된 경우, 그 국가로부터 직접 유입되었는지, 아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유입의 경로가 문제가 되며 이처럼 한자문화권의 어휘교류나 교류실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이것은 어휘의 역사적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역사적 자료 및 어휘교류를 바탕으로, 일본제 신한자어, 일본의 근대화 특징 및 조선의 근대화 의지 등에 관련되는 선행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1 개화기 조선의 주요 역사적 자료】

자료명・지은이 (발행년도)		내용
외교 사절 보고서	日東記遊 김기수 (1877년)	- 일정 : 1876년 2월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정부의 조선에 대한 사절파견요청으로, 1876년 4월 4일~6월 1일까지 1차 수신사로 방문한 김기수가 작성한 일본 방문 견문 보고서 - 업무 : 메이지 천황 알현 및 정계의 거물들을 만나 원로원과 의사당, 육군성, 내무부, 교육부, 박물관 등을 시찰 - 의의 : 일본의 신문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조선 정부에 문명개화의 필요성, 조선의 조정에 대일 관계 및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고 평가됨
	日槎集略 이헌영 (1881년)	- 일정 : 1881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일본시찰 및 일본사정 조사를 위해 파견된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이헌영이 조사한 견문보고서 - 업무 : ①일본 조정의 논의와 시세・풍속・인물, 다른 나라와의 수교・통상, 특히 세관이 관장하는 사무 조사 ②전신・학교・물산・풍속・관세업무 및 일본과의 조약국 등 분석 ③해관의 관장 업무, 관세를 매기는 원칙, 세칙(稅則)의 조목, 세관의 이해득실 등을 분석 - 견문내용 : ①오늘날 경범자 처벌규정과 비슷한 괘위죄목(詿違罪目), 일본이 조약을 맺은 19국과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한 9국, 동경에 와 있는 각국 공사, 각국에 파견한 영사관 17인, 각 관아의 소관 업무, 민간으로 관람할 만한 유람지, 37현의 이름, 관청에서 유명한 대가들을 학계별로 구분해 소개 ②일본의 고위관리, 지식인 및 외교관 등과의 면담내용, 학술어, 번역어, 일본문자, 일본과 조선과의 척도(尺度)・이법(里法)・양법(量法)에 대한 비교, 조선의 부국에 대한 나카다(中田無雄)의 글 등을 작성 - 의의 : 당시의 일본 국내의 사정, 일본의 신문화 및 외국 소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일본의 사회적, 외교 및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한 자료로서 평가됨
	使和記略 박영효 (1882)	- 일정 : 188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4차 수신사로서 일본체재 기간 동안의 행적을 박영효가 기록한 내용의 견문 보고서 - 업무 : 임오군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제물포조약에 의해 성사된 수신(修信)과, 한편으로는 김옥균(金玉均)이 사행의 일원으로서 임금의 은밀한 교지 수행 - 의의 : 자신의 견문 및 외교활동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은 하였지만, 일본의 정세, 견문대상에 관한 자신의 소감 및 견해, 면담자와의 대화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개혁개방 정책 및 문명개화, 유학생 양성을 통한 인재양성, 강병정책 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漢城旬報 박영효, 통리아문 박문국 (1883)	- 1882년 박영효(朴泳孝)일행이 수신사로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후쿠자와 유키치의 조언으로 국민대중의 계몽을 위한 신문발간의 필요성을 절감. 귀국 후 세계정세, 근대적인 군사장비나 국방방책, 개화문물 및 과학지식 등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한성순보 창간 - 의의 :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서, 외세에 대한 경계의식과 자국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 한편, 개화문물과 지식 등을 국내에 소개하여 나라의 개화에

출판물		크게 기여
	西遊見聞 유길준 (1889)	-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최초의 유학생 - 1881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유길준이 미국 유학 중에 보고 얻은 지식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西洋事情, 수년 앞서 일본 수신사가 되었던 김기수의 日東記遊를 비교하면서 국제관계·정치체제·인민의 권리, 법률, 교육, 상업, 조세, 화폐, 군대, 종교, 학술 등 각 분야의 근대적 개혁의 내용, 개화의 개념과 그 방법론을 기술한 계몽서 - 또한, 서양의 풍물, 혼례·장례·의복과 음식, 오락, 병원, 교도소, 박람회, 증기차 등과 서양 대도시의 모습 묘사
	大韓帝國 官報 (1894년)	- 1894년 갑오경장부터 발간되기 시작했고 내용면에서 당시 정부의 통치관련 기사와 각종 신제도를 소개하는 기관지 - 신문물에 대한 기사가 많아 자료의 성격상 새로운 어휘, 汽車, 工業, 工場, 社會, 人力車, 建築, 理學, 企業, 自主, 電話, 統計, 美術, 曜日 등 문명개화와 관련된 근대일본어가 다수 출현 - 대한제국시대에는 관보가 부분적으로는 신문의 기능을 수행 - 새로운 제도와 개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한자어의 사용이 많았으며 그만큼 일본식 한자어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음
	大韓留學生 會學報 (1907)	- 1907년 3월 도쿄에서 창간된 잡지 - 모두 3호밖에 발행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한국인 유학생이 발행하던 기관지 가운데는 호별로 본 경우 제일 많은 분량 - 대한유학생학회의 주요 창간 목적은 회원들 간의 친목과 학식교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서양문물을 수용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본국의 실력배양

3. 개화기 외교사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근대화 특징분석

3.1 日東記遊

1876년 4월 4일~6월 1일 파견된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파견되었다. 2월에 열린 조일수호조규(강화 조약)체결협상의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 전권대신 구로다 기요타카, 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의 파견에 대응하는 회례 및 일본 국내의 실정조사가 요청되어 조선 측이 거기에 응한 것으로 이뤄졌다. 고종은 문명개화를 표방하는 일본 실정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찰적(精察的) 역할도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측은 사절을 후대했으며 제휴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개화정책으로 유도해 종주국인 청나라에 우위를 정립하려는 의도였다. 방문지는 외무성, 아카사카 임시 황궁, 연료관, 박물관, 히비야 훈련장, 해군사관 기숙사, 육군포병본창, 공학 기숙사, 개성학교, 여자사범학교, 도서관(유시마 성당), 원로원 의사당 등이었다. 일본 측 기록[1]에 의하면, 일행은 상기 외에 다음과 같은 조선소와 종두관을 방문해서 구경을 했다고 서술했다.

1) 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第九巻』日本外交文書頒布会, 1950年, pp.205-209.

현석운(玄昔運)은 요코스카조선소에 초청받은 김기수의 대리인으로서 군함천성(軍艦天城) 및 인경건조(迅鯨建造)현장을 견학했고, 서사관(書寫官) 부사과(副司果) 박영선은 종두관(種痘館)을 방문해 종두전습을 받았다.[2] 김기수의 『日東記游』는 수신사의 사행기록으로 다방면에 대해서 상세하고 치밀한 문체로 작성되었다. 또한 일행에게 주어진 시찰항목은 군사제도와 기계의 편리성, 그리고 일본의 사회와 풍속이었다. 김기수는 일본과의 협상 때는 수호의 회복을 본지와 신의를 중시하면서도 국가의 위의(威儀)를 지키고, 과격치도 않고 맹종지도 않은 태도로 냉정하게 행동해 왕명을 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이 과시하는 근대적 문물에 대해 그는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이해불능이 두드러져 때로는 거부반응을 보였음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일본에서 유교가 낮게 취급되던 것을 개탄했고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하였지만, 일본의 농업은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김기수는 근대화 및 서양화된 일본의 문물에 때로는 경악하거나 당황하면서도 조선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외무성 경 이노우에 가오루가 사절의 숙소를 찾아왔을 때, 러시아 진출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도 공업을 일으켜 강한 군대를 건설하고 방어에 힘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기수는 외국으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거절했다.

또한, 이노우에 사저에 초대된 김기수는 이노우에로부터 세계 지도를 증정 받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의 위협을 들었지만, 서양화를 권하는 이노우에의 충고를 완곡히 거절하였다. 결론으로서 일본식의 개화는 그들에게는 유익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조선에는 해롭고 안이하게 모방해선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귀국 후, 수행원 중에는 일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발전에 공적을 남긴 인물도 있다. 예를 들어 종두관에서 전습을 받은 서사관 부사과 박영선은 귀국 후에 종두를 보급하는 데 힘썼다. 또한 통역을 맡은 박영석은 학교교육 및 철도부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후에 부산에 개성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대한철도회사를 결성해 민족자본의 경원선과 경의선 부설을 시도했으나 러일전쟁 하의 한국의 보호국화로 인해 좌절됐다.

이상 김기수에 의해 작성된 『日東記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본제 신한자어를 또한 색출하여 어휘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宋 敏(1988)은 『日東記游』에 기술된 人力車, 蒸氣船, 汽車, 新聞紙, 寫眞, 電線·電信, 西洋式時間指稱法과 같은 일본제 신한자어 7개를 색출하여 일본의 신문명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일본 연구자인 廣田榮太郎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어의 변천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한섭(2003)은 『日東記游』에서 3개(人力車, 蒸氣船, 汽車)의 일본제 신한자어를 제시했다.

이들 연구결과에서 색출한 7개(人力車, 蒸氣船, 汽車, 新聞紙, 寫眞, 電線・電信, 西洋式時間指稱法) 일본제 신한자어가 어떤 기준으로 신한자어 인지 구분방법 및 색출기준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日本國語大辭典』[3]과 『明治のことば辭典』[4] 으로 분석해본 결과 신한자어임을

2) 落合弘樹(2004)「朝鮮修信使と明治政府」『駿台史学』第121号, p3.
3) 北原保雄 著(2003)『日本国語大辞典』[第2版], 小学館
4) 惣郷正明・飛田良文(1986)『明治のことば辞典』, 東京堂出版

확인하였다. 그러나『日東記游』의 한자어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들 논문은 어휘접촉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였지만, 본 사행록의 경우 인적교류에 의한 어휘교류가 수반된 만큼 인적 및 문화 교류측면에서의 분석 연구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견문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韓哲昊(2006a, 2006b)는 수신사 김기수가 근대화에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과 문명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일본의 근대적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적한 인물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정척사 사상이 지배적인 당시 조선의 정계분위기로 인하여 김기수는 주관적인 판단을 자제하면서 메이지 일본의 실상을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인식을 나타내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견문 내용분석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일본의 경제적 및 군사적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김기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 양국의 관계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조일연대에는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정계의 반일감정으로 부국강병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지만, 일본의 정치개혁과 세금으로 일본국가 제정의 풍부함과 강병함에 감탄을 하였고, 전선, 기선 등의 서양의 기술과 기계와 같은 신문명에 대한 경험과정에서 문명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鄭応洙(2010)도 견문내용을 바탕으로 기계문명 및 근대식 제도와 물물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수신사 김기수가 근대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기계문명, 신식학교 및 서양음식 등과 같은 근대제도 및 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기수가 견문 중에 요코스카 조선소 견학을 거절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근대화를 위한 좋은 견학의 기회였으나 기회를 놓친 일이라는 생각이 된다.

이들 견문내용의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기계, 과학 등 신문명과 관계되는 견문내용에 일본제 신한자어를 연계하여 작자의 의도 및 일본 측 입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면『日東記游』가 조선의 근대화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日槎集略

『日槎集略』은 1881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이헌영이 일본을 견문 및 조사한 견문록으로서 천(天)・지(地)・인(人)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천(天)에서는 고종이 저자에게 명한 일본조정의 논의와 시세, 풍속, 인물, 다른 나라와의 수교, 통상 및 세관업무, 왕명에 대한 보고내용, 전신, 학교, 물산, 풍속, 관세업무 및 일본과의 조약국 등에 대한 내용, 해관의 관장업무, 관세를 매기는 원칙, 세칙(稅則)의 조목, 세관의 이해득실 등을 분석하였다. 지(地)는 일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중요 사건들, 즉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구경했다는 내용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작성되어 있다. 인(人)에는 일본의 주요 요직에 있는 자들과의 문답내용으로 세관 업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해관 업무, 부국에 관한 시책, 외무 업무 등의 순이었다. 청나라의 일본공사 하여장(何汝璋)과 1회, 요코하마항(橫濱港)의 청나라 이사(理事) 범석붕(范錫朋)과 5회에 걸쳐 만나 세 나라의 국제 관계와 부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의 여러 요직자들과 주고받은 서찰로, 부탁 혹은 감사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일본의 요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 함께 동행했던 신사유람단에 대해 간단한 약력, 수행원・하인・통사를 명기했으며, 각각 명령받은 사무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경범자 처벌규정과 비슷한 괘위죄목(詿違罪目), 일본이 조약을 맺은 19국가,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한 나라, 각국 공사 및 영사관, 각 관의 소관업무, 유람지, 유명한 대가들을 학계별로 구분해 소개하였다. 재야에서 유명한 대가, 일본문자, 일본과 조선과의 척도(尺度)・이법(里法)・양법(量法)에 대한 비교, 조선의 부국에 대한 나카다(中田無雄)의 글을 기록하였다. 이상 설명한 日槎集略를 바탕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宋 敏(1988)이 開花, 鑛山, 日曜日・土曜日, 大統領, 分割, 零, 圖書館 등의 한자를 색출하여 당시의 환경, 각자의 의도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어어휘사적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휘들을 출현 순서에 따라서 제시하였다. 이한섭(2003)은 軍事關係(17개), 法律과 制度(7개), 経濟關係(13개), 交通關係(8개), 通信關係(6개), 稅關關係(8개), 教育關係(23개), その他(15개) 등 일본제 신한자어 분석을 통해 일본의 신문명 어휘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없이 소개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는 근대화 관련 신한자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색출한 일본제 신한자어 구분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색출한 일본제 신한자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문화에 대해서 견문의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신문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 및 배경 등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그 어휘들이 사용된 배경, 의도 및 부가적 설명 등을 연계하여 신한자어 색출 및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가 일본 국내의 사정과 외국 소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게끔 하고 또한 그 당시의 외교 및 정치사가 조선의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해서 추정 및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태문(2011)은『日槎集略』에 반영된 문화교류 형태로서는 일본 인사들과의 필담, 일본의 문사들과 시문창화 및 詩書畵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헌영은 蜂須賀茂韶(관세국장)・高橋新吉(神戶세관장)・奧升淸風(神戶세관서기관)・本野盛亨(橫濱港 세관장)・葦原淸風(橫濱港 부세관장)・毛丸利恒(橫濱港 세관문서과원)・有島武(세관국대서기) 등 주임무인 세관시찰과 관련된 인물들과 필담을 나누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對日사행원들은 일본의 문사들과 시문창화를 즐겼고, 이런 시문창화는 詩를 첨예한 대립과 미묘한 신경전을 동반하기 마련인 외교사행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 외교적 방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文名을 드날리는 유일한 技藝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신사유람단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시문을 통한 교류가 많이 보인다. 그리고 필담과 시문창화를 통한 문학적 교류 외에 詩書畵 교류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귀국 후 신사유람단 사행원들은 일본에서 얻은 식견을 바탕으로 제도개편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조정의 정책에 실무급으로 배치되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리고 통신사 사행록이 실학파 문인을 비롯한 조선 지식인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그들의 견문체험이나 '雜著類' 등 개인적 기록들이 당대 청장년층에 수용되어 개화파 세력의 激增에 기여를 하였던 것을 나타내었다.

한편, 통신사행에 비해 문화교류가 축소되거나 약화된 것은, 외형상 공식적 사절이 아니라는 측면 외에 무엇보다 구성원의 면에서 본질적인 원인을 밝혔다. 곧 통신사행은 三使 외에

詩文唱酬를 임무로 하였던 製述官과 書記, 醫員, 畵員, 樂隊, 馬上才 등 文才와 技藝로 당대 조선을 대표하는 인원들이 대거 편제되어 이미 문화교류 역량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60년이 지나 행해진 신사유람단에서는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진 朝士와 隨員에 한정된 결과, 필담과 시문창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만 상호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사유람단은 이전 對日사행의 상호 문화교류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對日 使節團을 통한 한일문화교류사를 논할 때 신사유람단을 통한 문화교류도 꼭 포함시켜야 마땅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부국강병으로 외국과 힘으로의 대결을 통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의사소통 및 문화교류로서 외교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결국 힘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 간의 교류가 이루지는 것이 현실인 만큼, 문명개화를 갈망하는 조선의 근대화의 의지에 대해서 일본의 의지 및 의도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朴灘(2013)은『日槎集略』에 대해서 면담방법을 고려한 정보획득 전략을 바탕으로 근대 일본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을 통해 작자가 일본의 개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근대화 되어가는 일본과 조선의 낙후된 기술이 대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부국강병을 위해 재원을 쓰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한된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일본의 모습과 서양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신문명과 관련된 일본제 한자어 어휘를 중심으로 그 어휘들이 사용된 배경 및 조선의 근대화에 대한 일본의 의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것이 없어서 아쉬웠으며 향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使和記略

제4차 수신사 전권대신 박영효가 188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일본에 파견되었고,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들이 수행하였다. 파견 목적은 임오사변의 수습이며, 제물포 조약에 대한 '조선대관'의 일본의 방문사죄 요구에 응한 것이다. 배상문제의 협의에 관해서는, 외무경정 이노우에가 연장에 응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나타내 교섭은 대략적으로 성공했다. 국왕국서 지참과 三使体制가 있는 점은 통신사 형식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박영효는 공식적으로는 '특명전권대신', 나아가 '공사'를 칭하고 적극적으로 구미 공사를 순방하면서 국제관례에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고자 했다.[5)]

방문처는 오사카 포병공창, 오사카 지방을 수비했던 군대, 교토, 사진관, 외무성, 아카사카 임시 황궁, 도쿄대 졸업식과 경마장, 도서관, 여자사범, 우에노 박물관, 제1회내국회화 공진회, 창평관, 동물원, 공부 대학교, 전신 중앙국, 공부성 기계제조 시설, 인쇄국, 예병장, 왕자 제지장, 육군사관학교, 각국 공사관, 요코스카 조선소, 이노우에 외무 경 저택의 향연 등이었다.

일본 측의 근대 문물의 적극적인 시찰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박영효는 서양 각국의 공사로

5) 落合弘樹(2004) 앞의 논문, p11.

연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태극기를 국기로 국제무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또한, 김옥균 등 개화파 인물을 대동했으며 그들은 후쿠자와 유키치 등을 접견하였다. 이노우에 외무경과의 집에서 천황탄신 때 축하 잔치에 초대되었고, 서양식의 부인동반으로 무도회의 모습을 기록하였다.[6] 수신사의 귀국에 즈음하여서는 이노우에 후원으로 후쿠자와 유키치 문하의 이노우에 및 우시바 들이 신문 발행의 요원으로 동행하고 그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전권 부대신을 지낸 김만식이 주관하는 박문국에서 1883년 10월『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 신문 모두 창간시에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지도를 받은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편집・발행의 대부분이 조선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한글도 사용하면서 조선의 계몽개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 설명한 박영효에 의해 작성된『使和記略』에 대해 일본제 신한자어를 색출하여 어휘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宋 敏(1988) 및 李漢燮(2003)은 견문일정에 따라서 일본식 신문명 어휘를 색출 및 정리하였고, 이한섭(2003)이 제시한 일본식 신문명 어휘는 人力車, 寫眞, 汽車, 競馬場, 図書館, 博物館, 女子師範學校, 動物園, 電信局, 郵便船이다.

이들 두 연구자는 신문명이라고 판단되는 일본제 신한자어를 단순하게 색출하여 제시하였을 뿐, 어떠한 기준, 분류 및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이들 어휘가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관련 어휘를 언급하는 일본인 및 저자의 생각, 의도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다. 과거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 자료가 현재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야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자료에 대해서 조선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 및 역사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韓哲昊(2006a, 2006b), 한철호(2008)는 박영효의『使和記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일본체재 기간 중 박영효는 조선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천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를 재정 및 게양함으로써 청국, 일본, 서구국가들과도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신중하게 도모하기 위해 조일연대를 모색하였다.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부국강병을 추진하기 위한 모델로서 일본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박영효는 조선 청년들의 유학을 주선하였으며, 과거의 사행록과 같이 일본사찰이나 문화교류의 내용이 아닌 일본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사절단의 모습을 남겼다고 서술했다.

위 3편의 韓哲昊 논문의 결론은 박영효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하고 독립국가 및 수신사로서 능동적으로 업무수행 및 외교 경험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귀국 후에 박영효는 조선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으로서는 박영효가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등의 일본인들과의 인적 및 지식교류가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얻은 적은 지식과 조선에 대한 맞춤형 개혁전략이 아니고 일본의 근대화 모델을 따라 추진한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사회를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이 실패원인으로 판단되지만, 개혁을 위한 노력은 가치

6) 落合弘樹(2004) 앞의 논문, p11-12.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이 3장에서는 개화기 외교사절의 보고서인『日東記遊』『日槎集略』『使和記略』를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과의 교류 및 갈등 속에 남겨진 역사적 기록물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문명이라고 판단되는 일본제 신한자어를 선행연구자들은 단순하게 색출하여 제시하였을 뿐, 어떠한 기준, 분류 및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 고찰했다.

다음 제 4장에서는 개화기 출판물을 바탕으로 한 일본제 신한자어 분석 및 조선의 근대화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한다.

4. 개화기 출판물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근대화 특징분석

4.1 漢城旬報

李漢燮(2004b)은 한성순보 1호에서 36호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노우에가쿠고로(井上角五郎)가 소개한 일본어 어휘에 대해서 아래의 2가지로 분류해서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뉴스 중에서 뉴스 출처가 일본 신문인 것과 출처와 관계없이 내용이 일본에 관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어 어휘를 색출하여 일본 어휘가 한성순보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내었다.

1) 출처가 일본 관련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출판물
2)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일본에서 사용된 한자어 색출 : 군사 관련 용어가 가장 많고, 철도, 수학, 공업, 화폐 및 정부 관료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시된 일본제 한자어가 사용된 배경 및 의미 등에 대한 분석과 한자어 색출방법에 대해서 기준 없이 단지 한자어를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 뉴스를 번역하여 전달한 수준에 불과하며 한일어휘 교류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색출된 한자어 중에서 군사 관련 용어가 가장 많아서 일본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철도, 수학, 공업, 화폐 등의 단어도 부국강병 및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성순보의 일본제 신한자어 색출 및 분석을 통하여 일본신문의 뉴스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어휘 및 문화교류, 근대화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역사적 교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李漢燮(2006)은 근대 일본어 어휘의 한국어 유입 문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성순보의 기사에 사용된 일본어 어휘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신문, 중국신문 및 구미신문을 뉴스출처 및 뉴스출처가 아닌 기사의 일본어 어휘에 대해서 고찰을 하였다. 결과로서는 외국뉴스에서 일본어휘가 많이 도입되었고, 일본어 어휘를 도입시키는 계기는 한성순보 기사 작성 시 주로 중국, 일본의 신문과 서적을 뉴스源으로 삼았고 일본인을 번역원

으로 신문 발행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한성순보에 일본어 어휘가 주로 사용된 기사는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에 많으며 이들 기사는 서양과 일본의 역사, 지리, 정치, 사회, 산업, 경제 등 문명개화를 설명하는 기사들이다. 19세기말 이후 한자문화권의 신문명 어휘 성립이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며 그 교류의 주요 매개체로 각종 서적과 매스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국뉴스에서 일본어휘가 많이 도입되었고 일본어 어휘를 도입시키는 계기는 한성순보의 기사가 주로 중국 일본의 신문과 서적을 뉴스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한성순보의 기사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에 없는 어휘에 대해서는 이들 뉴스원에서 언급한 일본어 어휘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그 가치가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 그 근거로서 한성순보는 근원적으로 국민대중의 계몽을 위한 신문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귀국 후 세계정세, 근대적인 군사장비나 국방방책, 개화문물 및 과학지식 등을 중점적으로 전하기 위해 창간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중국, 일본 및 구미의 신문 및 출판물을 뉴스 출처로 삼았고 또한, 일본의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관계로 일본어 어휘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에 의한 일본제 신한자어가 중국에도 전파가 되었던 만큼, 중국의 신문에 일본제 신한자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신문을 번역하면 동일의 단어를 사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뉴스源이 명시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도 외교사절단의 방문 등으로 일본의 문명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일본제 신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어휘가 주로 사람들의 상호교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교류와 관계없이 외국의 신문기사를 번역한다면 이것이 상호교류로 판단될 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논문에 색출된 일본제 한자어에 대해서 색출의 배경, 기준 및 목적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들 한자어가 이노우에 한사람의 일본인에 의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람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보편적인 기준에서 한성순보에 포함된 일본어 어휘를 분석하여 조선과 일본의 문화 및 어휘교류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 西遊見聞

李漢燮(1985)은『西遊見聞』에 사용된 문명개화와 관련된 일본제신한자어(290개)를 분석하였고, 이들 한자어는 인문과학 14어, 자연과학 48어, 사회과학 158어, 일반어 42어, 기타 산업, 종교, 문예, 예술, 매스컴 및 문화, 건강 및 체육 예능 등이 관련되었다. 또한, 이들 한자어를『西洋事情』에 기술된 한자어와 현대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분류해서 나타내었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西洋事情』의 번역부분에서 나오는 어휘에 비해서 유길준 자신의 저술부분에서 나온 어

휘가 많은 것은 『西洋事情』을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저술할 때도 이미 알고 있는 일본어를 유입한 가능성이 있음. 유입된 언어 중에서는 會社, 裁判所, 上院, 測量學 등과 같이, 막말이후 일본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많고 거의 문명개화와 관계가 있다.

2) 『西遊見聞』에 들어있는 일본어는 전부 한자어이고, 일본에서는 훈독, 한국에서는 음독된 것이 거의 400개 정도이다. 이 중에는 機關車, 電信機, 野戰砲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건을 나타내는 어휘(69어)보다는 藝術, 政體, 社會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 이유는 추상적인 어휘가 구체적인 어휘보다 한국어로의 번역 및 교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李漢燮(2003)은 李漢燮(1985)의 연구내용과는 차이가 없지만 『西洋事情』에 기술된 어휘 중 서유견문에 290의 어휘가 쓰였음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신문명어인 印刷, 演說, 演說會, 下院, 會社, 科學, 海陸軍, 議員, 幾何, 汽船, 牛痘, 窮理學, 共和, 經濟, 言語學, 孤兒院, 酸素, 時間, 師範學校, 政治學, 大統領, 電信, 電線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西遊見聞』은 기존자료와 달리, 한문이 아닌 한글과 한자가 섞인 새 문체 및 일본의 신문명어를 사용해 작성한 계몽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생활 중에 『西洋事情』의 영향을 받았던 만큼, 단순 일본제 한자어 색출을 하여 비교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西遊見聞』과 『西洋事情』의 의미 및 작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지식 및 문화교류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3 大韓帝國官報

김지연(2005)은 1894년~1896년 2년간의 기사에 대해서 일본어 어휘를 조사하였고, 『明治のことば辭典』으로서 일본제 한자어를 색출하였다. 이 색출한 한자어를 바탕으로 『大韓帝國官報』 2년분에 사용된 일본한자어는 39개. 이 단어 중 20번 이상 사용된 二字한자어는 印刷, 衛生, 會社, 議員, 義務, 警察, 權利, 社會, 鐵道, 統計, 郵便이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 『官報』에 나타나는 일본식 한자어를 판별하기 위해서 『明治のことば辭典』를 사용하였지만, 이 사전 하나로서 일본제 한자어를 모두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다른 사전도 함께 판단자료로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官報』의 특징은 문명개화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20번 이상 사용된 二字한자어에 대해서 『官報』의 어떤 특징이 반영되었는지 추가적 분석을 통하여 조선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지연(2009)은 일본어가 『大韓帝國官報』에 어떠한 형태로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고찰로서, 일본어 어휘의 수용 방법을 ①어떤 문장에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가? ②표기 형태는 한자로 표기되었는가 한글로 표기되었는가? ③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읽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일본어 어휘의 수용 방법에 있어서 어종별(고유일본어, 한자어, 혼종어, 외래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官報』에 나타난 일본어 어휘는 1,967단어로 확인하였다. 일본어 어휘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문명개화와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화기『官報』의 특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4 大韓留學生會學報

白南德(2013)은 이『大韓留學生會學報』에서 二字 한자어를 색출해 종합국어대사전과 양국의 인터넷 최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 의해 채택된 한자어와 채택되지 않은 한자어로 분류했다. 선행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한자어에 대해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자료를 사용해 출처 및 용례조사를 실시했으며 또한, 그 첫 출자를 참고로 하여 전통적인 오래된 한자어인지 일본 메이지기에 만들어진 신한자어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는『大韓留學生會學報』에서 색출한 단어가 2,758개 이었으며 그 중에서 290어가 일본제 한자어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大韓留學生會學報』에는 일본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은 633어가 잡지에 게재되어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이지 신한어가 처음으로 나온 문헌을『日本國語大辭典』과 비교한 결과, 中村正直譯『西國立志編』(1870ー1871), 久米邦武の『米歐回覽實記』(1877), 福澤諭吉의『西洋事情』(1866ー1870), 矢野龍溪의『経國美談』(1883ー1884)순서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신문명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유학생에 의해서 발행된『大韓留學生會學報』에 일본제 신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유학생들이 신문명 어휘를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본 견문보고서 및 개화 상소 등과 비교해서 어떤 관점의 차이로서 사용되었는지 등 일본인들과의 문화 및 지식의 직접적인 교류에서 차이가 있는 한자어 어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류 및 갈등 과정에 남겨진 역사적 기록물에 대해서 일본제 신한자어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문명개화 및 근대화와 인적, 지식 및 문화교류의 2개 분야로 분류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일본제 한자어를 바탕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일본제 신한자어 및 신문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한자어를 분류 및 기준 없이 색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련 배경 및 의도 등의 환경에 대한 설명 없이 분석하여 단순히 이들 어휘가 사용되었으므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많았다. 일본제 신한자어를 색출하는 경우, 관련 다수의 전문사전을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분석할 때, 그 당시의 인적 및 문화 교류 상황을 함께 분석하면 보다 분석의 정도 및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단순히 한자 어휘를 색출하여 나타내기 보다는 관련 배경,

의도 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의 근대화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인 만큼, 과학기술 및 문명개화와 관련된 일본제 신한자어와 그 배경의 역사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신문 등과 같은 기록물에 의해 단순히 어휘가 전달되고 수용되는 것보다 인적, 문화 및 지식교류에 의해 선행되는 것이 많은 만큼 어휘의 교류와 문화, 인적 및 지식의 교류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외교사절단의 보고서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핵심적 사항인 조선의 기록에 대한 내용만 분석을 하였고, 수신사 방문 및 과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의도 등을 분석한 내용이 없다. 즉, 조선과 일본의 문화 및 지식의 교류에 대한 대조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행록, 견문록 및 신문과 같이 간접적인 교류에 의한 어휘와 작자가 유학 및 장기간 체류한 즉 직접적인 교류의 결과는 다소 차이점이 나타날 것이므로 상호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사료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향후 분석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교사절단의 보고서 및 견문록을 바탕으로 일본제 신한자어의 유입현황과 인적 및 지식교류에 있어서 조선의 근대화와 연계된 인문네트워크의 형성과 갈등에 관한 재고찰

1) 김기수의『日東記遊』나 이헌영의『日槎集略』, 박영효의『使和記略』, 박대양의『東槎漫錄』등에서 사절단과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문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및 지식교류에 있어서 조선의 근대화와 연계된 지식인들의 사상에 대한 재고찰
2) 사행록에 대해서는 조선의 입장에서의 분석과 일본의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입장 및 의도 등에 의한 상호비교 분석
3) 개항이후 일본유학생들이 편찬한 서적 및 신문 등을 바탕으로 지식교류에 나타난 일본제 신한자어의 특징 분석
4) 사행록, 견문록 및 신문과 같이 간접적인 교류에 의한 어휘와 작자가 유학 및 장기간 체류한 즉 직접적인 교류의 결과는 다소 차이점이 나타날 것이므로 상호 비교분석
5) 위의 1)과 2)를 바탕으로 발췌된 일본제 신한자어를 중심으로, 조선의 문명개화 및 근대화와의 관련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인적 및 지식과 문화에 대한 교류의 측면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참고문헌

김지연(2005)「大韓帝國官報에 나타나는 日本 漢字語에 대하여」『日語日文學研究』제55호, pp.139-151.
김지연(2009)「개화기 일본어 어휘의 수용 방법」한국일본어학회 학술발표회, 132-137.
김지연(2011)「大韓帝國官報에 나타나는 일본어 어휘와 그 수용실태에 대하여」『日語日文學研究』제78호, pp.101-118.
김지연(2012)「일본 한자어의 수용과정으로 고찰한 大統領의 성립」언어정보 15호, pp.35-52.
朴灘(2013)「이헌영의 정보 획득 전략과 근대일본의 形象化-日槎集略 중 問答錄을 中心으로-」『국학연구론총』제11집 택민국학연구원, pp.4-29.

白南德(2013)「『大韓留學生會學報』に出現する日本漢字語の研究-明治新漢語を中心に-」『日本語文學』 第59輯, pp.1-17.
_____(2015)「『親睦會會報』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 연구-「萬國事報」를 대상으로-」『日本語文學』第65輯, pp.17-34.
宋 敏(1988)「日本修信使의新文明語彙接触」『語文學論叢』7, 國民語文學究所, pp.51-65.
_____(1989)「開化期新文明語彙의成立過程」『語文學論叢』 國民大8, pp.69-88.
이배용(1996)「開化期 西歐 科學技術 受容의 역사적 의미」『省谷論叢』 第27, pp.49-86.
李漢燮(1985)「西遊見聞の漢字語について一日本から入った語を中心に一」『國語學』141集, pp.39-50.
_____(1998)「朴泳孝の建白書に現れる日本漢語について:近代における日韓兩語の出合いを探るため」『國語語彙史の研究』17, 國語語彙史研究會, pp.368-390.
_____(2003a)「近代における日韓兩語の接触と受容について」『國語學』 第54卷3号, pp.71-84.
_____(2003b)「19世紀末 韓日兩語의 接續과 交流에 대하여 -李鑄永의『日槎集略』을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제 46호, pp.281-295.
_____(2004a) 「19世紀末以後の日韓兩語の接触と交流について ; 李鑄永の『日槎集略』に出ている語を中心に, アジアにおける異文化交流」明治書院, pp.281-295.
_____(2004b)「近代以降の日韓語彙交流:日本人が直接傳えた日本の漢語」『日本研究』 제3집, 高大日本研究會, 2004. pp.77-91.
_____(2006)「근대 국어 어휘와 중국어 일본어 어휘와의 관련성; 19세기말 자료를 중심으로」『日本近代學研究』 第13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5-17.
_____(2010)「개화기 일본 신문명 어휘의 도입에 대하여 -漢城旬報 를 중심으로-」『일본학연구』 제30집, pp.23-47.
_____(2013)「近代韓國語コーパスに現れた新概念の様相と定着過程」『東アジアにおける知的交流 -キイ・コンセプトの再檢討-』 卷44, pp.89-100.
이효정(2017)「19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의 독립 국가 지향 - 박영효의『使和記略』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52집, 한국고전문학회, pp.235-260.
鄭応洙(2010)「조선사절이 본 메이지 일본-김기수의 일동기유를 중심으로」『日本文學學報』, pp.311-328.
최덕수(1998)「『使和記略』(1882) 연구」『史業』 제50호, pp.31-53.
韓哲昊(2006a)「제1차 수신사(1876) 김기수의 견문활동과 그 의의」『한국사상사학』 제27호, pp.283-317.
韓哲昊(2006b)「제1차 수신사(1876) 김기수의 일본인식과 그 의의」『史學研究』 제84호, pp.153-189.
한철호(2008)「개화기 朴泳孝의『使和記略』에 나타난 일본 인식」『한국학논집』 제44호, pp.96-127.
한태문(2011)「紳士遊覽團 使行錄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日語日文學』 제52호, pp.405-420.
落合弘樹(2004)「朝鮮修信使と明治政府」『駿台史學』第121号, pp.1-2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7220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근대, 번역, 일본제신한자어, 인적교류, 지식교류, 어휘, 외교사절, 보고서 Modern Japanese, translation, japanese kanji (Japanese kanji), personnel exchange, knowledge exchange, lexical history (vocabulary history), diplomatic mission, report

Analysis of research status on personal and knowledge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modernization of Korea in the enlightenment period.

Kong, Mi-Hee

As for historical records left in the process of exchange and conflict with Japa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prior study was analyzed in two areas: 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Joseon based on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and human, knowledge and cultural exchanges.

In the case of extracting Japanese kanji,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based on the related specialized dictionaries and to analyze historical data. so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new language related to the history of science and civilization.

Based on these perspectives, potential topics for future analysis are the following.

Reevaluate the formation and conflicts of literary network in relation to the influx of New Chinese Characters in Japan and knowledge sharing based on overall analyses of missionary reports and travel logs.

1) Reevaluate the thoughts of authors on knowledge sharing through missionaries and literary network with people in Japan from Kisoo Kim's『日東記遊』, Hunyoung Lee's『日槎集略』, Younghyo Park's『使和記略』, and Daeyang Park's『東槎漫錄』.
2) In terms of missionary reports, the analysis of the Joseon Dynasty and Japan's position and intention based on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3) Analyze characteristics of New Chinese Characters in Japan as appeared in knowledge sharing based on books written by students studying in Japan and newspapers after the opening of trade.
4) Cross-referencing and analysis of words by indirect exchange, such as the books and newspapers, and the results of direct exchange will be somewhat different, meaning that the authors will study abroad and stay for a long period of time.
5) As for 1) and 2) above, analyze characteristics of New Chinese Characters in Japan as appeared in the excerpts from books and newspapers written by missionaries to Japan and students studying in Japan to identify their origin as to whether they are based on Western languages from Chinese classics translated by Japanese or independently created by Japanese.

필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공미희 (한자): 孔美熙 (영문): Kong, Mi-Hee 국문제목: 개화기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조선과 일본의 인적 및 지식교류 연구현황 분석 영문제목: Analysis of research status on personal and knowledge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modernization of Korea in the enlightenment period. 소속: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연구교수 E-mail: kongmihe@pknu.ac.kr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 2019. 05. 12. 심사일 : 2019. 05. 27. 심사완료일 : 2019. 06. 11.

KCI